

# 모르고 있을 뿐 우리는 다시 만난 것 아닐까



## 경주 기림사(祇林寺)



“네가 인연 지을 곳은 250만 리 떨어진 해동이다. 그곳의 남쪽 지방에 명당이 있다. 그곳에 절을 짓고 중생을 제도하여 그곳이 불국토가 되도록 하여라.” 인도 수다라국 왕의 아들 안락국은 떠나 먼 고행 길에 오른다. 그리고 신라 땅에 절을 세운다. 경주 함월산 기림사다.

“달을 머금고 사는” 산, 함월산(含月山). 그 능선 위로 파랗게 버려진 겨울하늘이 떠있고, 그 쌀쌀한 하늘 끝에는 하얀 낫달이 걸렸다. 초승달이다. 밤새 그 작은 몸은 끝도 없는 어둠을 뚫었고, 이제 하얀 낫달이 되어 환관처럼 걸려있다.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기림사다.

기림사는 643년(선덕여왕 12) 인도에서 온 광유 스님의 제자 안락국이 세웠다. 그 때는 임정사(林井寺)였다. 그 후에 원효(元曉 :

617~686) 스님이 중창하고 기림사라 했다. 고려시대 들어서 각역 선사 등 여러 선지식들이 주석했다. 안락국의 아버지 수다라 왕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제자였다. 그는 세속의 사랑으로 번민하다 성불하지 못한 채 입적한다. 그리고 그는 몇 번의 생을 거쳐 수다라국의 왕으로 살게 된다. 그의 도반이었던 광유 스님도 몇 번의 생을 옮겨 수다라 왕과 같은 생에서 만나게 된다. 불도를 이루고 입적했던 광유 스님이었으나 도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여러 생을 옮겨온 것이다. 그 약속은 “먼저 불도를 이룬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제도해 주자”는 것이었다.

대적광전으로 보리수 그림자가 다가간다. 전각은 빗줄을 모두 버렸고, 보리수는 잎을 모두 떨쳤다. 여러 생을 옮겨 만난 도반처럼 서로 한 그루 나무로 서있다. 도반을 만난 수다라 왕은 눈물을 흘린다. 범마라국의 임정사에 주석하고 있었던 광유 스님은 수다라 왕

의 머리를 쥐고 장삼을 입힌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수다라 왕은 성불한다. 또한 그의 아들까지 성불한다. 설하다.

사시에불이 낡았다. 다가간 보리수 그림자가 꽃살문을 연다. 우리 모두는 다시 만난 것이 아닐까. 꽃잎을 쥐고 선 스님이 그 꽃잎을 쥐었고, 법당 안에서 예불을 마친 스님은 법당을 지었는지 모른다. 모르고 있을 뿐, 우리는 다시 만난 것이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일이 중생사인가 한다.

헤어진 사람이 떠오른다면 기림사에 가볼 일이다. 모두 다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숲에 살았던 나무가 다시 만났고, 함께 살사를 했던 도반이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초승달이 오늘날 또 끝없는 하늘을 만나다. 차가운 바람이 꽃살문을 여민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 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원적외선 “열침”**을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썩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뎀(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메트, 오션건강조끼, 요추베개등 자매제품다양)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 (희담석합장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원근,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실용성을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양과 병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로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g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석회사 현대불교신문사